

강진 불금불파 1만2800명 다녀갔다

인구 1600명 시골마을에 관광객 몰려...매출 2억여원 달성 지역 경제 활성화·생활 인구 유입 등 성공적 모델 자리매김

올해 강진군의 특색있는 로컬 행사인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에 1만2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 따르면 불금불파는 강진군에서 병영면의 고구 먹거리였던 불고기에 이야기를 입혀 7월과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4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진군 병영시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불금불파는 4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반기 22회 운영기간동안 8030명이 방문했고 판매 실적은 1억5412만1000원을 달성했다.

폭우와 복구 등으로 9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총 9회만 운영된 하반기에는 총 4779명이 다녀갔고 판매 실적은 5642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은 총 31회 진행됐으며 방문객 1만2809명과 2억1055만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하반기에 포토존을 리뉴얼했고 전통주 빗기, 그림엽서 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추석 명절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 찍어주기 등의 소소한 컨텐츠를 추가해, SNS홍보 효과를 높였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구 1600명의 작은 병영면

에 주말이면 평균 1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생활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에 경제 활성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에는 특별 초청 가수 김연자의 뜨거운 무대가 펼쳐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 내년 봄부터 시작될 불금불파의 시즌3 홍보까지 특목히 해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죽어가는 병영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민하던 차에 병영의 역사가 깃든 불고기를 모티브로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탄생시켰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불금불파가 병영 로컬브랜딩 사업과 연계해 병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다각화해 강진 관광객 유입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메타프로방스 일대를 돌며 '담양에(愛) 주소갯기' 캠페인을 펼쳤다.

“담양으로 주소 옮기고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메타프로방스 상점 대상 캠페인

담양군은 최근 청년정책협의체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일대를 돌며 '담양에(愛) 주소갯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과 청년정책협의체는 메타프로방스 내 입점 상가를 방문해 실제 담양에 거주하지만, 관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주소 옮기기를

독려하고 전입 시 주어지는 지원 혜택에 대해 홍보했다.

이 외에도 군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1사 1담당제'를 실시해 지역 거주 근로자가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시책으로 관내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부대원 주거 관리비 지원, 공간 꾸러미 지원 사업 등 전입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전입시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미술관이 있는 흔한 동네 풍경' 주제 개관전 이선희 작가 작품과 미술관 내부 전경.

(나주시 제공)

오래된 나주정미소 한켠에 '작은 미술관' 문 열었다

문체부 '작은 미술관...' 선정 개관

인구 11만명의 나주시에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2024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돼 나주정미소 건물에 '나주작은 미술관'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했다. 지역 주민단체인 읍성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미술관이 있는 흔한 동네 풍경'이라는 주제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작은 미술관은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나주정미소의 4동, 5동을 중심으로 연계 운영된다.

대형 미술관은 아니지만, 나주의 첫 미술관이자 주민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행정 지원이 이뤄낸 결실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큐레이터가 연계된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할 계

획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술관 개관을 알리는 첫 전시는 '흔한 동네 풍경-정미소 그라운드'를 주제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작은 미술관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유는 물론 지역 예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운행시간표 부착

130개소...버스 이용객 편의 제공

장흥군이 농어촌버스 승강장 130개소에 운행시간표를 부착한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승강장에는 운행시간표가

없어 운행간격이 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장흥교통과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배차시간 정보를 반영한 버스 운행시간표를 제작하고 승강장 130개소에 10월 말까지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용길 장흥군 재난안전과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축령산서 '문화·예술 향연' 펼쳐진다

31일~11월 3일 '미르터 자연예술제'

장성군 축령산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장성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제편백순배출터 하모니센터에서 '제3회 미르터 자연예술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장성지역 사회적협동조합 미르터가 주관하는 이번 자연예술제는 '장성의 자랑' 축령산 편백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향연이다.

설치·행위예술과 관객소통연극, 창작무용 등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공연이 나날 동안 펼쳐져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감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제가 열리는 장소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편백순배출터 하모니센터는 국내 최초로 덴마크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순배출터 국제인증 받은 곳이다. 프로그램 인증과 시설 인증을 모두 획득한 숲 교육의 '요람'이다.

행사장 한편에는 장성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문화장터도 마련된다.

장성군 귀농·귀촌인들이 주축이 돼 편백공예품과 계절과일 발품, 누룽지, 건나물, 다육식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사회적협동조합 미르터 전영선 대표는 "지역농가와 예술가, 순배출터가 힘을 모아 장성 축령산 편백순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치유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께, 지금, 미래를 향해' ...나주시 오늘 시민의 날 행사

나주시가 30일 오후 2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30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함께, 지금,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행사가 꾸며진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활동 분야에서 헌신한 주인공들을 예우하는 '시민의 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31일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제6회 이통

장 한마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시립예술단 축하공연과 동신대 무용학과 공연을 시작으로 식후엔 가수 홍지윤, 박남정 등 초청 가수 4인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식은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성원해 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라며 "나주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12만 시민 화합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